

Cornerstone Breakdown

▶시나리오 데이터

플레이어: 4~5인. (플레이어 수가 적은 경우 PC 3 제외)

예상 플레이 시간: 온라인으로 16~20시간

사용 서플리먼트: 코어 1,2권, 상급, IC, EA, LM, RW, CE (GM은 CE 필수.)

필요 경험점: 130+150, 히어로 컨스트럭션

스테이지: RW

트리거 워닝: 대규모 살해 및 간접적인 사망 묘사, NPC 간 협박 및 가스라이팅

기타: 실험적인 캠페인 특수 기믹이 존재합니다. 사회 능력치가 유용하게 쓰이며, 탱커 포지션을 권장합니다.

▶트레일러

무엇이 세상을 떠받치나? 우리는 무엇을 밟고 서 있나?

우리는 까먹었다. 마치 공기처럼 그것은 당연했으므로.

그러나 기반이 쪼개지는 지금,

우리는 무엇이 세상의 주춧돌인지 알게 되리라.

주춧돌을 부수어 집을 무너트리고,

향기를 뒤틀어 경멸을 병에 담아내는 이들이

사람들의 뒤에서, 사람들을 내세워 암약하기 시작한다.

더블크로스 3rd Fan made Scenario

Cornerstone Breakdown

더블크로스, 그것은 배신을 뜻하는 말—.

▶시나리오 개요

캠페인 스토리

빌런 조직 토레아도르의 수장 엘 마타도르는 빌런즈 이어처럼 레니게이드의 완전한 해방을 바라왔으며, 이를 위해 워딩부터 다시 활성화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이를 위해 그는 항레니게이드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

그 첫 걸음은 대중이 항레니게이드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다방면에서 전개되었다. 우선 항레니게이드제의 상징인 프래그런스의 이미지를 다방면으로 훼손하고, 항레니게이드제를 오염시킴으로써 대중의 불신을 유발한다. 휘하 수하들을 이용해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로 정부와 항레니게이드제 연구진을 이간해 혼란을 심화시킨다. 그 사이에 압박을 못 이긴 연구진을 프래그런스로 변장한 수하, '반데리예로'를 통해 영구적으로 포섭하고, 제 1 시설을 프래그런스가 보호한다고 선언하여 연구진들을 제 1 시설로 모았다. 그 연구원들은 일이 틀어지거나 포섭을 거부한 경우 처살될 예정이었으며, 거기에는 오사가 이오리도 알려들게 된다. PC들이 레드스파이크 리스트와 배신한 프래그런스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 저지하면 1부는 종료된다.

그러나, 엘 마타도르는 1부에서의 실패를 여론전 한 번으로 뒤엎는 데 성공한다. 이로 인해 프래그런스의 기술이 집약된 '오리진 프로토콜' 시설의 보안이 허술해졌으며, 엘 마타도르는 이 곳을 노린다. PC들이 이를 저지하고, 항레니게이드제의 진상을 파악한 다음 엘 마타도르의 근거지에 진입해 엘 마타도르 일당을 최종적으로 저지하면 캠페인이 종료된다.

▶핸드아웃

각 PC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설정이 붙는다. 캐릭터 작성 시 플레이어와 상담할 것.

PC 1: 오사카 이오리의 지인이다.

PC 2: 엘 마타도르와 교전한 경험이 있다.

PC 3: R대책실장인 키리타니 유고와 협력 관계이다.

PC 4: 프래그런스와 가까운 사이이다.

PC 5: 키류 사에카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PC 1

커버 / 워크스: 자유 / 자유

시나리오 로이스: 오사카 이오리 (추천 감정: **P** 우정 / **N** 연민)

오사카 이오리는 항레니게이드제 관련 기관에서 제법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한 당신의 오버드 지인이다. 시 외곽에 있는 생산시설로 떠나기 전날, 당신과 만난 이오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항레니게이드제에 대한 음모론을 보여주며 자신의 업을 가벼이 여기는 세태를 한탄한다. 그때는 인터넷의 글을 헛소리라고 치부하고 그를 위안하며 떠나보냈건만, 지금의 기류를 보면 생각나는 이는, 역시...

PC 2

커버 / 워크스: 히어로 / 자유

시나리오 로이스: “엘 마타도르” (추천 감정: **P** 진력 / **N** 경계)

당신은 “엘 마타도르”와 수차례 교전한 전적이 있다. 얼마 전의 교전에서, 엘 마타도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와 동시에 엘 마타도르가 보낸 것은 스크랩된 항레니게이드제 인체실험 사건을 고백하는 기사와 “엘 마타도르”의 친필이 적힌 아폴로 11호 포토카드. 그는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이기에 이런 걸 보내는가.

PC 3

커버 / 워크스: 히어로 / 자유

시나리오 로이스: 키리타니 유고 (추천 감정: **P** 성의 / **N** 격의)

당신은 R대책실의 관계자 혹은 R대책실을 지원하는 히어로 등의 협력자이다. 히어로 “프래그런스”가 배신했다는 소식과 ‘레드스파이크 리스트’를 기점으로 반-항레니게이드제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키리타니 유고는 이 운동의 비정상적인 확산 속도와, 운동의 결과로 히어로와 노멀 사이의 질서가 근본부터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배후를 잡아내야 한다.

PC 4

커버 / 워크스: 자유 / 자유

시나리오 로이스: 히어로 “프래그런스” (추천 감정: **P** 신뢰 / **N** 의심)

당신은 항레니게이드제를 최초로 개발한 히어로 프래그런스와 인연이 있는 사이이다. 안티 레니게이드 백서로 전 도교가 들끓는 와중, 당신은 그가 연락이 끊겼다는 소문을 듣고, 동시에 TV에서는 그가 더블크로스 했다는 속보가 송출된다. 그가 직접 선언문을 낭독하는 장면까지도. 하지만 당신은 그가 그럴 리 없다는 사실을 안다. 이 누명을 벗겨야 한다.

PC 5

커버 / 워크스: 자유 / 자유

시나리오 로이스: 키류 사에카 (추천 감정: **P** 연대감 / **N** 격의)

당신은 형사 키류 사에카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그는 최근 들어 ‘레드스파이크 리스트’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레드스파이크 리스트’의 신뢰도는 루머에 가까우나, 대중은 이를 믿기 시작했으며 진상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담보를 겪던 차, 사에카는 당신에게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오프닝 페이즈

씬 1: 첫 번째, 균열 (PC 1)

해설

PC 1의 회상. 한 달 전, 오사카 이오리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을 PC 1에게 고백하는 장면이다.

묘사 1

한 달 전, 카페, 항레니게이드제 연구원 오사카 이오리는 교외로 전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이라도 보려고 당신을 카페로 불러냈다. 여타 연구원이 그러하듯, 그의 인상은 제법 초채하다. 그래도 당신을 보면 약간은 표정이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대사 모음: 오사카 이오리

“와 주었구나. 이거 고맙고 미안하네. 너도 많이 바쁘다고 들어서... 못 볼 줄 알았지.”

“이번에 교외로 전근을 가. 거리는 멀지 않은데 도쿄로 갈 용무가 거의 없어.”

“시설 안에 거의 수용되는 셈인데... 알잖아, 이걸 보람차고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해.”

묘사 2

그러나 좋아한다는 말을 뒤로 하고, 이오리는 잠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을 잇는다. 그는 과연 자신이 종사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가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이는 회의가 아니라 울분에 가까웠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항레니게이드제의 소중함조차 깎아뭉개는 음모론성 글을 보며 그는 조금은 과격한 말을 내뱉다 이내 시들어버린 것처럼 말을 멈추어 간다. 그 뒤로 이오리는 도쿄 외곽으로 전근을 갔고, 연락은 없어졌다. 그 뒤로 세상은 조금씩 혼란 속으로 치달기 시작한다. 소란스럽기 짝이 없는 지금에 와서 돌아켜 보면, 이때 세계에 난 균열을 알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대사 모음: 오사카 이오리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다) “...좋아한다. 그것만은 의심하지 않지.”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는 요즘 들어 잘 모르겠더라.” (휴대폰을 꺼내어 보여준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무얼 하는지도 모르고.”

“분명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

“적어도 알려주기도 했으면 좋겠... 미안. 내 얘기만 너무 했네.”

“아무튼, 내가 떠나도 잘 있어. 외곽이라 거의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연락할 테니까.”

대표적인 게시글과 댓글들

[워딩 사실 허위 아님? 아무도 워딩의 효과를 본 적이 없잖아?]

[오버드 친구한테 워딩 써보라고 했더니 머리에 힘주는 것밖에 못하더라 [wwwwwwww](#)]

[제약회사의 음모라니까. 거기 뭐 넣어도 아무도 모르잖아. 1.4억 명으로 하는 초합법 임상실험이라고? 정말 달달하지 않겠냐 이거다.]

[진짜 미친놈이다. 요즘에도 저거 믿는 놈 있냐?]

[아니 믿음이고 뭐고 검증은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응 빌런넷에서 검거~]

결말

PC 1이 회상을 끝내면 씬을 종료한다.

씬 2: 두 번째, 예고 (PC 2)

해설 1

PC 2의 회상. 엘 마타도르가 자신에게 더 거대한 계획이 있음을 PC 2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단순한 무력 이상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뉘앙스로 암시하면 좋다.

묘사 1

얼마 전, 당신은 엘 마타도르와 대치하던 때를 떠올린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당신은 그 대치에서 가까스로 그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이 참전한 히어로 몇은 더러운 술수 때문에 쓰러져 있고, 살아남은 한 명은 엘 마타도르의 인질이 되어 버둥거린다. 그리고, 엘 마타도르는 입을 열었다.

대사 모음: 엘 마타도르

“더 할 텐가?”

“더 할 것이냐고 물었다.”

“몇 번을 더 이렇게 목에 칼을 대야 정신을 차리지?”

“난 질렸다. 족쇄 크기나 자랑하는 네놈들 같은 것과 싸우는 것도 낭비야.”

“다음에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세련된 행보로 돌아오겠다.”

“잘 보라고. 이 한 걸음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진다)

해설 2

PC 2의 현재. 엘 마타도르가 전달한 포토카드가 PC 2의 집에서 폭발한다. 포토카드에서 전직 연구자의 기고문은 항레니게이드제에 대한 신뢰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함을 보이는 것이며, 아폴로 11호와 글귀는 이것이 계획의 시작이라는 뜻을 내포함과 동시에 달 착륙 음모론 또한 연상케 할 수 있다. GM은 포토카드의 의미를 메타적으로 설명해도 좋다.

묘사 2

그리고 당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어보면 우체국 배달원이 아폴로 11호 포토카드와 함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모아놓은 종이를 당신에게 전한다. 스크랩에는 메이저 일간지에서 대인임상실험과 관련된 항레니게이드제의 진상을 폭로하는 전직 연구자의 기고문이 있고, 아폴로 11호 포토카드의 뒷면에는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적혀 있다. 엘 마타도르의 글씨체로. 그러고 보니 그 배달원도 엘 마타도르를 닮았다는 데까지 생각이 뻗치지만 이미 늦었다. 우편물에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쪽지가 폭발해 PC 2의 집만 불길에 휩싸인다.

결말

PC 2가 상황을 수습하면 씬을 종료한다.

씬 3: 세 번째, 배신 (PC 4)

해설 1

PC 4와 프래그런스가 최근에 만났던 순간이다. 이때 프래그런스는 항레니게이드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표현하지만, 그 문제는 PC에게 말하기 곤란한 사안임을 어필한다. 즉, PC 4에게도 숨길 만큼 그 비밀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묘사 1

일주일 전, 프래그런스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를 당신은 회상한다. 그 날도 프래그런스는 무지하게 바빠보였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아직도 항레니게이드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멀쩡히 작동하는 항레니게이드제를 대체 왜 아직까지도 연구하느냐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프래그런스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대사 모음: 프래그런스

“PC 4, 이런 늦은 밤에 여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항레니게이드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물론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니... 몸이나 타협으로 때워야겠지만요.”

“무엇이 부족한지는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진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제는 해결될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정말 바쁠 테니,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해설 2

프래그런스의 배신을 PC 4가 인지하는 순간이다. 만약 PC 4가 저게 “진짜” 프래그런스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경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할 것.

묘사 2

그렇게 말한 지 일주일, 프래그런스는 당신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별 일 없는 걸까, 아니면 문제가 생긴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여느 때와 같이 TV를 틀어 뉴스를 보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다. 바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히어로, 프래그런스가 공개적으로 배신을 천명했다는 소식이 거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었다.

대사 모음: 저녁 뉴스

“속보입니다. 방금 우리 언론사로 보내진 영상에 따르면, 항레니게이드제 권위자로 알려진 히어로 프래그런스가 양심 선언과 함께 빌런으로 전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XX 채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객관적인 판단의 단초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영상 전문을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사 모음: 프래그런스

“현재 만들어지는 항레니게이드제는 오염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앞에서 빌런과의 투쟁으로 죽어가는 동안 제약회사들은 제가 개발한 항레니게이드제에 입맛에 맞는 실험물질을 넣어 임의대로 임상시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레니게이드제 제조 및 후속 개발 예산의 상당수를 공적 자금 없이 이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 질서에서 우리는 이들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문제는 빌런 같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다고 말하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무관심한 정부와 사람들의 시선 아래서 잊속만 불리는 제약회사에 종속된 항레니게이드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 히어로의 사명이라면, 저는 더 이상 히어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가면을 쓰고 행위하더라도-그것이 진짜 정의를 여러분 모두에게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그 십자가 또한 기꺼이 질 것입니다!”

결말

PC 4가 혼란스러운 생각을 수습하면 씬을 종료한다.

씬 4: 네 번째, 명단 (PC 5)

해설

PC 5가 키류 사에카의 도움 요청을 수락하는 장면이다. 사에카는 상당히 답답해진 상황이며, 그만큼 문제 해결 의지도 강하다. 이를 도울 사람만 있으면 완벽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다. 만약 보상 없이는 행동하지 않겠다면, 월급에서 쪼개서라도 보상은 주겠다고 하자.

묘사

뉴스를 틀어보면 매번 나오는 빌런 범죄, 일반 범죄... 보다 보면 당신은 당신의 시나리오 로이스를 떠올리게 된다. 알고 있었다. 원래 키류 사에카는 사건 현장이 아닌 곳에 얼굴을 잘 비추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워커홀릭 형사가 사건 현장이 아닌 곳에 얼굴을 비출 이유가 얼마나 빈약하겠는가. 최근에는 프래그런스의 배신과 관련한 사건으로 너무 바빠서 전화 거는 것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자마자 당신의 폰이 울린다. 회선은 보안회선, 발신자는 키류 사에카다.

대사 모음: 키류 사에카

“PC 5. 접니다.”

“전화한 이유는... 하. 인정하기 싫은데. 일 때문이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프래그런스가 배신했다는 소식은 아실 테죠.”

“그걸 예측한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원지 아십니까.”

“제가 수사 중인 ‘레드 스파이크’. 제약업계 내 ‘내부의 적’을 담았다는 인터넷 구석의 루머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선견지명으로 칭송받고 있죠.”

”경찰도 이를 무시하지 못해요. 프래그런스가 배신한 것도 있고, 리스트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중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을지 잘 아니까.”

“그 배후를 캐는 작업이 대중의 눈엔 달갑지 않을 거예요. 특히 경찰이 좋아하지 않는 히어로와 함께한다면 더더욱.”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을 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결말

PC 5가 키류 사에카의 제안을 수락하면 씬을 종료한다.

씬 5: 다섯 번째, 연쇄 (PC 3)

해설

PC 5가 키리타니에게 현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 해결을 요청받는 장면이다.

묘사

프래그런스의 배신 뉴스를 기폭제로 하고, 레드 스파이크로 군중이 결집하여 대규모 시위가 도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R대책실 정문 앞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낮지 않은 대책실장의 집무실 전면창으로 시위 현황도와 같이 시위하는 군중이 내려다보인다. 이들을 내려다보며 키리타니는 이 시위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 중이고, 리스트대로 움직인다면 큰 피해만 발생할 수 있다며 PC 3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다.

대사 모음: 군중

“제약회사 악당놈들 남김없이 쓸어버려!”

“오버드도 못 믿겠다 장관진도 때려쳐라!”

“우리 노멀 다 죽이는 강제접종 거부한다!”

대사 모음: 키리타니 유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PC 3. 분명 집회는 모두에게 허용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와 관련된 여론이 확산되는 속도와 집회의 강도는 그 화제성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하게 급격하고 비정상적입니다. 현재 정정 보도도 이상할 정도로 확산되지 않고 있고요.”

“레드 스파이크는 거의 모든 정부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프래그런스의 배신으로 ‘공신력이 입증된’ 배신자들의 명단이 바로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우니까요. R대책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신을 따로 부른 겁니다.”

“리스트대로 움직인다면 자승자박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잡아 처벌한다 하더라도 항레니게이드제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무고한 연구자들만 고초를 치르게 되겠죠. 빌런들이 이를 제일 반길 겁니다.”

“이 여론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가까스로 유지되던 균형도 파괴되고, 세상은 레니게이드 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악화되려나요.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더 익숙하니까.”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 사건의 내막과 진상을 알아봐 주시고...”

“만약 존재한다면, 해결해주시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말

PC 3이 키리타니 유고의 제안을 수락하면 씬을 종료한다.

▶미들 페이지

씬 6: 불신의 뿌리 (마스터 씬)

해설

엘 마타도르가 항레니게이드제와 업계 내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씬이다.

묘사 1

그리고 대망의 항레니게이드제 n/4분기 신생아 접종일. 그래도 히어로의 항레니게이드제 접종 캠페인 덕에 여전히 대다수는 접종을 받고자 했으나, 아침부터 접종 일정은 난관에 부딪힌다. 항레니게이드제 수송 트럭이 시위대에게 둘러싸인 것이다. 시위대와 수송차량 경호 히어로 간의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에서, 뺑이 넓은 모자를 쓴 누군가(정체를 숨긴 엘 마타도르)가 저 욕망으로 오염된 차량을 끌어내야 한다고 군중을 선동하고, 차량을 지키던 엑스트라 히어로들은 엘 마타도르의 《침식하는 목소리》¹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차량 뒷칸 문을 연다. 그 안에서는 오염된 항레니게이드제가 폭발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다. 히어로들이 제때 이펙트를 사용해 폭발을 봉쇄한 뒤 약간의 정적이 흐른다. 그사이 엘 마타도르는 《침식하는 목소리》를 해제하여 이들이 제정신으로 소문을 퍼트릴 수 있게 한 다음 퇴장하고, 골목에서 정체를 드러내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시청한다.

대사 모음: 시위대

“빌런 놈들이 만든 거 싹고 어디로 가는 거야! 애들 죽이러 가지!”

“당신들 다 숙고 있는 거야! 그 리스트 안 보고 살아?”

“이 항레니게이드제 전부 빌런이 만든 거라고!”

대사 모음: 경비 히어로 (2인 기준)

“시민 여러분, 진정하시고 질서를...!”

“선배, 그냥 선배 역장으로 돌려치시면...!”

“...안돼. 여기서 도망쳐도, 또 따라올 뿐이야. 여기서 어떻게든 물러서게 해야 한다고!”

대사: ???(정체를 숨긴 엘 마타도르)

“저들의 욕망으로 얼룩진, 저 차를 열어라!”

대사 모음: 경비 히어로+시위대

“선배, 설마...” (무의식적으로 차량 뒷문을 열어본다)

“...미쳤군. 다들 피해요! 다들-” (역장을 차량에 돌려친다)

¹ 원칙적으로 《침식하는 목소리》는 성공하는 데 대결 판정이 필요하나, 엑스트라에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동 성공으로 간주한다.

(차량 폭발 후, 시위대 사이의 침묵. 그리고 냉담. 히어로들을 찌려본다. 그것조차 알지 못했느냐는 표정들. 히어로들은 영웅적인 일을 해냈으나,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그 와중에 인파에서 떨어지는 한 명.)

대사: 엘 마타도르

(시위 현장에서 사라진 뒤 모자를 벗는다) “역시 노멀들이란...”

“사실만 보여주면 진실이라 믿는단 말이지.” (휴대폰을 켜 뉴스를 시청한다)

묘사 2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곳곳에서 시민의 지적으로 폭발 직전의 오염된 항레니게이드제가 대거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동 대처를 한 덕에 사상자는 거의 없는 상황. 그러나 정부가 이런 대규모 오염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위대는 책임소재를 정부에게로 돌린다. 동시에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레드스파이크의 견해가 확신으로 뒤바뀌는 기류도 감지된다.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집중을 주저하고, 더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한 정부나 히어로를 탓하기도 하는 모양. 이로써 정부와 항레니게이드제 전반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된 상태. 엘 마타도르와 같은 뉴스를 보던 키리타니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다 약간은 얼굴을 찌푸리며 달칵, 하고 잠시 스크린을 끈다.

대사 모음: 뉴스 속보

“속보입니다. n/4분기 집중일인 오늘, 시내 곳곳에서 항레니게이드제 오염으로 인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히어로들의 빠른 초동 대처 덕분에 사상자는 전무하나, 시위대들 사이에서는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오염을 정부가 아니라 시위대가 먼저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에 따르면 시위대의 지적으로 히어로가 오염을 인지하는 순간이...”

“프래그런스의 배신 이후 ...사전 관리 및 대처에 실패한 담당 부서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레드 스파이크’에 속한 빌런 관계자가 이 일을 주도했으리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 집중 의향이 있는 다음 분기 집중예정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

대사 모음: 키리타니 유고

“루머와 사실이 섞인다, 라...”

“최근의 항레니게이드제 관련 루머나 사건에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는 히어로와 관계자들.”

“전부 모셔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결말

키리타니가 사람을 모으는 준비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씬을 종료한다.

씬 7: 숙청 (PC 1)

해설

프래그런스의 배신 소식과 이제는 공공연히 대중 사이에 오르내리는 리스트, ‘레드 스파이크’로 인해 시국은 매우 뒤숭숭하다. 그럴 때 걸려 온 오사카 이오리의 전화. 전화를 받으면, 이오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이 대규모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이오리는 PC 1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PC 1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수락하더라도 R대책실 요원이 PC 1을 R대책실로 데려갈 것이므로 씬의 결과는 같다.

묘사 1

PC 1이 바깥을 걷고 있노라면 거리는 잇단 시위와 고성, 새로이 터져나오는 뉴스거리로 아수라장이다. 이때 걸려오는 이오리의 전화. 이오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대사: 오사카 이오리

“아아, 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탄식)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

“우리 시설이, 수사에 들어간대. 빌런이 이 안에 있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PC 1? 이 사람들은, 선후배와 동기들은-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이 일에 헌신해왔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뭔지도 모르는 리스트 때문에, 이렇게 수사받고, 끌려가고... 뭐가, 잘못된 거지?”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 지금이라면 아마 누구의 손이라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도와줄, 도와줄 수 있을까, PC 1.”

묘사 2

이오리는 전화를 끊는다. 아아, 숙청이라는 검붉은 먹구름이 이들에게 닥치고 있었다. 이렇게 통화를 마치려는 찰나, 당신의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당신을 불러세운다.

대사 모음: R대책실 요원들

“PC 1, 항레니게이드제 주요 연구원의 핵심 지인. 맞으십니까.”

“R대책실에서 나왔습니다.”

“한시가 급하니, 이쪽으로 모시죠.”

결말

PC 1이 요원들의 요청을 승낙하면 씬을 종료한다.

씬 8: 가장 어두운 시간 (PC 3, 전원)

해설

PC들이 R대책실에서 합류하여 상황을 공유받고 문제 해결에 착수하는 씬이다. PC들은 오프닝 직후에 바로 왔다고 해도 좋다. 이들은 R대책실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히어로들로, 거절하고 싶다고 한들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PC 5의 경우, 키류 사에카가 동행한다고 해도 좋다.

묘사

PC 1이 호출받은 방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PC들과 키류 사에카도 호출받아 R대책실 문 앞에 집결한 상황이다. 문을 열어보면 총체적 난국이 펼쳐져 있다. R대책실장 주변에 있는 모든 모니터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화상 통화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탄식으로, 그리고 지표와 수치가 내지르는 비명으로. 레드 스파이크에 지목된 제약회사 주가는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렸고, 히어로 인력 현황도 완전 고갈에다, 언론사에 요청한 엠바고가 거부되고, UGN 지부장 표정도 썩어있다. 그 외에도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묘사하면 좋다. 키리타니가 여러분을 불러모은 이유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는 것이다. 태스크 포스 발족 후 바로 정보수집 씬으로 넘어간다.

대사 모음: 키리타니 유고

“...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승낙 시)“감사합니다. 따라서, 현 시간부로 PC 3(임의로 바꿔도 좋다)을 중심으로 하여 R대책실 직속 임시 태스크포스, 서치라이트를 발족합니다.”

“핵심 목표는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 중인 반-항레니게이드제 여론전을 저지하는 것이나, 일차적으로는 레드 스파이크를 퍼트리는 배후를 찾아 파훼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은 여러분 다섯 명이며, 보고나 요청은 저한테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 상황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죠.”

결말

바로 정보수집 씬으로 넘어간다.

정보수집 씬

묘사: 키류 사에카의 브리핑

반-항레니게이드제 운동은 프래그런스의 배신을 기점으로 여러 헛소리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단순히 진실을 규명하는 길로는 부족할 것이다. 아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이 믿음으로부터 떼어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실만이 아닌 영향력이 강력히 요구된다. 브리핑이 끝나는 즉시 여론지수 기믹을 공개한다.

대사 모음: 키류 사에카

“현 상황은 간단합니다. 개판이죠.”

“반-항레니게이드제 여론은 초기에는 산발적인 양상이 주를 이루었다가 프래그런스의 배신 이후 레드 스파이크를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이번 사태를 도화선 삼아 대대적으로 폭발했죠. 배후도 여론의 물살에 가려져 흔적도 찾기 힘들더군요.”

“이제 어떤 진실을 들이밀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기 직전이에요.”

“즉, 우리는 진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

<정보: 소문/웹, 8>: 프래그런스가 배신하기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에 나돌던 명단. 명단에는 프래그런스를 필두로 제약업계에 잠입한 빌런이나 빌런으로 전향했다고 추정되는 연구원 약 300여 명이 올라 있다. 초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기에, 특히 프래그런스를 그 대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무시당했지만, 프래그런스의 배신과 도쿄 항레니게이드제 오염 사태를 기점으로 이 명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살생부가 되어버렸다.

◆엘 마타도르

<정보: 뒷세계/빌런, 10>: 블랙독/오르쿠스/솔라리스 트라이 브리드.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히어로로 인질로 삼다 빠져나가는 등, 철저히 마키아벨리적인 빌런이다. 민간인이 휘말리는 것 따위 전혀 신경쓰지 않으며, 활동 범위는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빌런들의 트렌드에 따라 빌런들의 팀, '토레아도르'의 수장을 맡고 있다. 토레아도르의 규모와 엘 마타도르의 발언을 맞춰 본다면, 현 사태의 배후에 그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항레니게이드제 오염 사태

<정보: 히어로/소문 / 지식: 레니게이드, 11>: 이번 수송차량 연쇄 폭발 사건의 원인은 오염된 항레니게이드제였다. 이것이 만약 노멀에게 주사되었다면 즉사했을 것이다. 모든 정부 기관은 이 사태로 예민해져 있으며, 그 원인이 자신이 아닌 한 대중의 불신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무한히 조사를 개시할 것이다. R대책실이 서치라이트 같은 비선 조직을 뒤에서 꾸리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략적인 조사 결과, 오염된 항레니게이드제의 대다수는 R대책실에서도 전략 시설로 분류된 도쿄 근교 제1 시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데...

◆도쿄 근교 제1 시설

<정보: 소문/히어로, 12>: 항레니게이드제 오염 사태 이후 해금. 현재 도쿄 근교 제1 시설은 현 사태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제1 시설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현 오염 사태의 원인을 규명할 경우 전례 없는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에 따른 수사로 무고한 연구원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현 사태에 대한 수사 유보를 요청 중이다. 오사카 이오리도 주요 인력으로 분류되어 제1 시설에서 근무 중이었다.

◆히어로 프래그런스

<정보: 히어로, 10>: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 이후 해금. 항레니게이드제를 개발한 노이만-솔라리스 크로스 브리드 히어로. 최근에 배신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하지만 항레니게이드제에 대한 그의 열정은 진짜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프래그런스를 본 시각은 지난주였는데, 그때도 그는 없는 예산으로 항레니게이드제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대중적 무관심을 고려한다면, 항레니게이드제를 위한 그의 배신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왜 하필이면 빌런 쪽으로 전향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씬 9: 긴급출동 (PC 4)

조건: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를 조사했다

해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를 조사하자마자 R대책실에 제약 시설이 습격받고 있다는 경보가 울린다. 습격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공교롭게도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들이 배신한 연구원이든, 정말로 잠입한 빌런이든 간에, 이를 막아야 함은 자명하다. 키리타니는 즉시 PC들에게 습격받는 시설로 출동할 것을 요청한다.

습격받는 시설로 이동하면 빌런들이 파괴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즉시 전투가 발생한다. PC들을 한 인게이지, 5m 떨어진 곳에 빌런즈: 크리미널 2체를 한 인게이지에, 다시 5m 뒤에 갱스터 1체(CE 수록)를 배치할 것.

묘사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막 입수했을 때, 대책실 내부에 경보음이 울린다. 경보 내용은 항레니게이드제 제조와 관련된 제약시설이 빌런에게 습격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사 모음: 키리타니 유고

“시간이 없군요. 행동을 당장 개시해야겠습니다.”

“제약 시설에서 준동하는 빌런들을 제압해주시시오.”

“어쩌면 이로부터 어떻게 레드 스파이크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대사 모음: 빌런들

”방해꾼인가?“

”리스트 때문에 들통났으니 어쩔 수 없군. 싸울 수밖에...!“

”갈 땐 가더라도, 우리만 가진 앓을 테니 말이지!“

결말

전투가 종료되면 전투 결과를 바탕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 페이지로 넘어간다.

미들 전투 데이터

빌런즈: 크리미널 (CE 115p의 빌런즈: 크리미널과 데이터 동일)	갱스터 (CE 116p의 갱스터와 데이터 동일)
◆요약 HP 50 / 행동치 9 / 장갑치 3 / 침식률 100%(+3D) ◆콤보: 진홍열파 ▼마이너: 백열 ▼메이저: 신축완+올레인지 / 기능: 백병 / 14DX+7 / 사거리: 시야 / 대상: 단일 / 공격력: 8 ◆기타 회피 달성치는 24로 고정되어 있음.	◆요약 HP 61 / 행동치 14 / 장갑치 5 / 침식률 100%(+3D) ◆콤보: 집중사격 ▼마이너: 서브머신건 장비 ▼메이저: 컨트롤 쇼트+오우거 배틀 / 기능: 사격 / 12DX+5 / 사거리: 20m / 대상: 단일 / 공격력: 18 / 지근거리 대상 공격 시 영거리 사격 조합하여 +3D ◆기타 교섭으로 회피. 9DX+4

씬 10: 숙주 (PC 2)

조건: 씬 9를 진행했다

해설

그러나 의문점이 있다. 빌런들 중에서는 연구원으로 위장한 인원도 있었지만, 대놓고 외부에서부터 침입한 빌런도 있었다. 어떻게 습격 직전까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남아있던 차에, PC들의 뒤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연구원이 포착된다. 대사를 보건대 이 자가 빌런들의 출입을 도왔을 것이다. 연구원은 선언만으로 제압하여 조사할 수 있다. PC 전원이 난이도 12로 <지각> 판정을 진행하여 2명 이상 성공할 경우, 이하의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만약 PC들이 이하의 사실 외에도 무언가를 더 조사하고자 한다면, 연구원의 상태 때문에 유의미한 조사가 힘들다고 할 것.

묘사

전투가 끝나고 찾아드는 고요. 그 고요를 깨는 목소리는 출입문 근처에서 나고 있었다. 철문을 두드리는 투박한 주먹은 창백한 연구원의 것이었다.

대사 모음: 연구원

”돌아가야 해...”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나를, 나를 내보내 줘...!”

연구원에 대하여

이 연구원의 혈색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매우 창백하고, 의식이 느릿하다. 마치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그러하다. 경동맥에 인간 정도 크기의 생명체에게 무엇에 물린 흔적이 있다.

지각 판정에 성공 시

몰린 흔적을 따라가면 피하조직에 은밀히 새겨진 빌런 조직, ‘토레아도르’의 낙인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은 한 차례 살해당한 뒤 E로이스: 피의 신부로 되살아나 토레아도르의 명령에 복종하는 상태이다. 해제 조건은 토레아도르 간부 1인 이상의 전투불능이다.

결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론전을 벌여볼 수 있을 것이다. 여론 페이지로 넘어간다.

씬 11: 자기실현적 예언 (PC 1)

조건: 프래그런스와 도쿄 근교 제1 시설을 조사했다

해설

정보를 조사하자마자 가장 가까운 TV가 뉴스를 송출한다. 뉴스의 요지는 배신한 프래그런스가 도쿄 근교 제1 시설을 시설 외부의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대중 앞에 선언했다는 것. 뉴스가 끝나면 정보: 오사카 이오리를 조사할 수 있다.

묘사

PC들이 일(어떤 일이든 간에)을 마치고 쉬려던 찰나, 근처의 스크린에서 새로운 뉴스가 송출된다.

대사 모음: 뉴스

”속보입니다. 얼마 전 배신을 공표한 전 히어로 프래그런스가 도쿄 근교 제1 시설을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항레니게이드제 오염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된 제1 시설은 어떠한 해명도 거부한 상황이지만, 프래그런스는 결백한 이들을 지키기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고수했습니다.“(프래그런스의 발언이 송출된다)

”한편, 제1 시설에는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에 기재된 인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뉴스가 꺼진다)

대사 모음: 프래그런스

”현 시간부로, 빌런, 정부기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제1 시설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들을 적대하는 바입니다.“

”같은 연구원 동료로 지키는 일은 영웅이기 이전에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며,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리스트 하나 때문에 이들의 노고를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오사카 이오리

<정보: 소문/웹 / 지식: 레니게이드, 9> 우로보로스-샬러맨더 크로스 브리드 오버드 연구원. 그도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이 때문에 제1 시설 내부에서 프래그런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는 다른 연구원을 지키고자 프래그런스에게 접촉했으며, 그의 보호를 얻어내었다. 그러나, 이를 성사한 이오리의 마음속은 안도보다는 불안에 차 있는 것 같다...

대사 모음: 오사카 이오리

”어, 어, 여보세요?”

”다, 당연히 안전해. 프래그런스님도 여기 와 계시니까... 발런들도 막아주고 계시고.“

”네,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신 게 다행이지.“

”그래, PC 1도 건강하고... 그럼 이만 끊을게.“

”그 리스트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는...“(전화를 끊으며)

결말

오사카 이오리에 대한 정보수집을 마치면 씬을 종료한다.

씬 12: 악마와의 거래 (마스터 씬)

조건: 오사카 이오리를 조사했다

설명

PC들과의 통화를 종료한 이오리의 뒤에는 프래그런스가 서 있다. 프래그런스는 이오리에게 인자한 말투로 잠시 걸자고 한 뒤, 으스스한 곳에서 정체를 드러낸다. 시설을 지키겠다고 한 프래그런스는 사실 진짜 프래그런스가 아니라 엘 마타도르를 빼다 박은 그의 수하, 반데리예로였다. 반데리예로는 오사카 이오리의 통화 내용을 의심하며, 티끌만큼이라도 일이 새어나가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를 협박한다.

묘사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이오리의 뒤편에는 프래그런스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프래그런스는 이오리에게 같이 걸자고 제안하는데...

대사 모음: 반데리예로와 오사카 이오리

《궁극의태》로 프래그런스의 모습을 유지 중이다)”다 끝내셨나요? 마음이 착잡하시겠죠, 압니다.“

”예, 예에...”

”기분도, 분위기도 아직은 뒤숭숭하니, 잠시 같이 걸을까요.“(같이 걷다가 으스스한 곳으로 이오리를 데리고 간다)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올 게 왔다는 분위기이다)

”예상한 것 아니었나요, 연구원?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반데리예로의 본모습으로 돌아온다)

”... 반데리예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말해봐. 뭐, 안 말해도 좋고.“ (어느새 만들어진 작살이 이오리의 목을 노리고 있다)

”그냥 안부 인사입니다. 밖에 걱정하는 사람 많은 거, 모를 리 없을 텐데요.“

”호오, 그런데 목소리는 왜 떨고 말이야 응?“ (이오리는 침묵한다)

”아무튼, 여기서 있었던 일 한 톨이라도 새어나가면-알지?“

”넌 리스트 적힌 것처럼 주사약 오염시킨 진짜 빌런 되고, 이 시설에 있는 네 선후배들도 다 같이 골로 가버리는 거다?”(다시 《궁극의태》로 프래그런스의 모습으로 바뀐다. 바들바들 떨면서 고개만 끄덕이는 이오리.)

결말

간단한 인사 후 이오리와 ‘프래그런스’는 헤어진다. 그러나 이오리가 해낸 뒤틀린 거래는 여전히 그 자신을 좀먹고 있다.

썬 13: 추적 (PC 2)

조건: 썬 10,12를 진행했다

해설

PC들의 공적과 진상을 알리려는 노력 끝에,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에 대한 신용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만약 추정한 대로 이 리스트가 빌런 조직의 음모라면, 지금 이들은 떨어지는 신용도를 막느라 바쁠 것이다. 그 빈틈을 파고들어 리스트의 정확한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원흉을 대중 앞에 드러낸다면 이들의 더러운 음모도 순식간에 불식될 것이므로. 간략히 묘사를 마친 후 FS차트를 진행한다. 인터넷상에서 리스트가 퍼졌으므로, 인터넷부터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명칭	레드 스파이크의 근원을 추적하라!							종료 조건					5라운드 경과				
판정	정보: 웹				난이도		7	최대달성치/경험점					30/경험점 5점				
진행치 카운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FS차트: 레드 스파이크의 근원을 추적하라!

목표치: 20

종료조건: 5라운드 경과

판정: 정보: 웹

난이도: 7(여론 상태 반신반의 기준, 여론 상태가 호전될 때마다 난이도 -1, 악화될 때마다 난이도 +1)

최대 달성치: 30

경험점: 5점

지원 판정: [사회],[정신]

이벤트

진행치 4: 레드 스파이크의 인용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특정한 몇 개의 계정으로 초기 발생지가 좁혀지고 있는데... 그 계정들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다! 더 지워지기 전에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위치가 정해졌다면 남은 건 속도 싸움이다. 이후의 판정을 지각, 난이도를 8로 변경한다.

진행치 **7:** 남은 데이터 조각을 건지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온전하게 되찾지는 못했다. 곳곳에 빈틈이 있으며, 이를 채워나가는 것은 지성의 몫이다. 이후의 판정을 [정신], 난이도를 **9**로 변경한다.

진행치 **10:** 이것으로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를 올린 초기 ip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어쩐지 바깥이 소란스럽다. 그곳에 있는 이들은 필시 흔적을 지우려 온 빌런일 터. 한 치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후의 판정을 백병/사격/RC, 난이도를 **13**으로 변경한다.

진행치 **14:** 빌런은 전부 제압되었다. 이대로 경찰에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으나, 이들도 토레아도르 소속이라면 인간만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터. 구슬리거나 협박하여 정보를 얻어보자. 이후의 판정을 백병/교섭/조달, 난이도를 **14**로 변경한다.

진행치 **17:** 마침내 배후가 드러났다. 리스트를 올린 이는 피카도르, 토레아도르의 간부 중 한 명이다. 위치는 도교 중심의 한 빌딩.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 준비하면 되겠으나, 아직 잔당이 남아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때는 순수한 힘이 도움이 된다. 이후의 판정을 [육체], 난이도를 **12**로 변경한다.

결말

FS 차트 성공: 모두 정위치. 이제 ‘피카도르’의 머리를 대중 앞에 내걸면 된다. 다음 씬으로 넘어간다.

FS차트 종료: 우리는 아직도 음모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해방한다면 이 공백을 메울 수도 있을 것이다. 등장한 모든 **PC**는 침식률을 **10**씩 올린 다음, 피카도르의 본거지를 찾아낸 것으로 한다.

씬 14: 붉은 뺨기 (전원)

해설

꽤 넓은 고층 빌딩 상층. **PC**들이 **FS**차트에서 알아낸 장소로 진입하면, 피카도르의 종자가 창가를 보며 **PC**들을 빈말로라도 환영해준다. **PC**들이 종자와 의사소통을 시도하거나 종자를 공격할 경우, 종자는 바로 핏물로 변해 녹아버린다. 종자가 녹아내리자 진짜 피카도르가 **PC**들의 뒤편에서 등장하여 **PC**들을 기습한다. 난이도 **12**의 회피 판정을 무작위 **PC** 1명이 진행한다. 실패할 경우, 그 **PC**는 피카도르에게 공격받아 **3D10**의 **HP** 피해를 받는다. 직후 전투를 시작한다. **PC**들을 한 인게이지로 하여 **PC**들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 피카도르를, **5m** 떨어진 곳에 종자 1체를 따로 배치한다. 따라서 총 인게이지는 **3**개가 된다. 피카도르의 배틀 플랜은 클라이맥스와 같으나, **E**로이스와 ▼모노사비오, 《불사불멸》은 사용하지 않는다. 피카도르는 전투 불능 시 소생부활+순간퇴장으로 씬에서 퇴장한다.

묘사 1

PC들이 피카도르가 머물고 있는 방에 들이닥치면 피카도르로 추정되는 인물이 팔짱을 끼고 뒤돌아서 있다. 고풍스러운 탁자 위에 놓인 문서와 하드 디스크, 스크린들은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만 같다.

대사 모음: 피카도르(의 종자)

”환영한다, 서치라이트. 용케 모든 걸 떨쳐내고 왔더군.“

”그래서 이제 어떡할 텐가. 나를 잡아 가둘 것이냐? 아니면 힘으로 꺾을 것인가?“

”어차피 내 머리는, 너희 마음대로 잘라서 진상할 수 있는 게 아닌데.“(종자는 피로 녹아 사라진다)

묘사 2

PC들이 피카도르와 상호작용하려는 순간, 그 인물은 핏물로 녹아버린다. 그리고 뒤편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대사 모음: 피카도르

(PC가 회피 성공 시)"아-깝군. 조금은 시선을 끌어줄 줄 알았더니만..."

(PC가 회피 실패 시)"... 너희들 모가지를 내가 자른다면 모를까."

"경사경사 효수로 경고도 조금 하고 말이지. 너희도 손을 떼고 싶지는 않잖아."

"다섯 전부는 몰라도, 두어 놈을 "엘 마타도르"님 앞에 데려가면 적당히 좋은 진상품이 되겠지?"(전투 시작)

(전투 패배 후) "...알겠다. 때가 되었구나.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너희의 탓이니 원망치 말거라."(소생부활+순간퇴장으로 씬에서 퇴장한다)

결말

비록 피카도르는 도망쳤지만 현장에 남은 모든 증거가 리스트의 진상이나 다름없다. 서류, 서버, 기록, 심지어 종자가 폭발하는 영상까지... 완벽하다. 여론 페이지로 넘어간다.

씬 15: 뎛 (PC 1)

설명

이전의 여론 페이지로 레드스파이크 리스트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던 찰나, PC 1의 휴대폰으로 급히 전화가 걸려 온다. 발신자는 키리타니 유고. 키리타니는 현재 R대책실과 제1 시설 간의 협상용 연락망마저 완전히 끊겼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것이 배신이든, 시설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든 간에 비상사태임이 분명하다.

묘사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PC 1에게 걸려오는 긴급전화는 그 안도를 무색하게 한다.

대사 모음: 키리타니 유고

"PC 1, PC 1 맞습니까?"

"서치라이트 팀원 모두가 알아야 하는 소식이니,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제1 시설과 R대책실 간의 마지막 연락망이 단절되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비슷한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요."

"그 리스트가 허위임은 자명합니다만, 모두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프래그런스까지 있는 1 시설이 어떤 이유로 모든 통신을 단절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 다른 모락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숨 돌릴 틈은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엄치 불고하고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1 시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주시시오."

결말

PC들이 이를 승낙하면 씬을 종료한다.

▶클라이맥스 페이지

씬 16: 거짓된 향취 (전원)

설명

폐허가 된 제1 시설에서 피카도르 및 반데리에로랑 전투한다. 제1 시설은 피카도르와 반데리에로가 같이 학살극을 펼쳐 폐허가 된 상태이며, 피비린내도 진동한다. PC들은 인간의 절규를 따라가 시설 정문에서 오사카 이오리를 대면한다. 그러나 이오리는 방금 전의 살육으로 인한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오리를 미끼로 피카도르가 기습해오나, 성공하지 못한다. 연출로만 PC를 기습하는 것이다. 간단한 대화와 총동침식(난이도 9) 처리 이후 클라이맥스 전투를 시작한다. 전투 목표는 모든 에너지의 전투 불능이다.

묘사 1

도착한 제1 시설은 황량하기까지 하다. 불이란 불은 다 꺼져 있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으며-지나치게 조용하다. 그러나 피비린내가 짙어지며, 어디선가 신음인지 절규인지 모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대사 모음: 오사카 이오리

"PC 1...?"

"아니야, 여긴, 여긴 안 돼. 도망, 쳐..."

"피카도르와, 그 악당 놈이 전부-" (어둠 속으로 끌려나가고, 오사카 이오리를 붙잡은 피카도르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다)

대사 모음: 피카도르

"두 번은 속지 않는 모양이지? 속았으면 오히려 실망했을 거다."

"봐라, 이 폐허를. 너희들 것이야."

"레드 스파이크가 진실로 남았다면, 이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가 지켜주고, 돌봐주었는데-프래그런스의 영도 하에 시간을 보내 그대로 모든 연구인력을 우리 편으로 흡수하는 게 플랜 A였거든."

"그런데, 들켜버렸으니... 어쩔 수 없잖아? 결국 내가 피를 더 많이 빨려면 항레니게이드제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즉, 아군이 아니면 적일 뿐이라고. 잘라내야지!" (꿀꿀대며 웃는다)

"이 연구원 친구는 오버드라 잘 안 죽던데... 모르지. 계속 죽고 살아나다 보면 감복해서 빌런이 될지도 모르겠네."

"원한다면 가져가 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놓아주지도 못할 테니까!"(총동판정을 진행한다)

(피의 그을림 사용 시)"아아, 이 맛이야. 먹으면서 버려지는 것... 인간들이란, 평생 모르겠지. 피를 주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꾹꾹 숨어 있으니까..."

(처음 전투 불능 시) "말에서 떨어져도, 일어나지 못하리라 생각했나? 어떤 놈의 피든 상관없어-빨아올리기만 하면 될 뿐!"

(다시 전투 불능 시) "아니야, 아직 죽지 않아. 네놈들은... 이길 수 없어!"

(사망 시) “내 피를, 마지막으로 마시게 되는구나...”

대사 모음: 프래그런스(반데리예로)

(등장 시) “꼴이 말이 아니군요, 피카도르. 레드 스파이크도 들켜버리고, 만신창이에, 짐덩이까지 달고 오다니?”

“이래서야, 일이 더 복잡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두면 내가 손을 쓴 것까지 당신이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무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줘요.”(고통의 메아리를 피카도르에게 사용한다)

(HP가 120 이하가 될 경우, 프래그런스의 외형이 무너지고 본모습인 반데리예로로 돌아온다) “이래서 골치가 아파. 분장하고 싸우는 게 참 힘이 많이 들거든. 누가 마지막이 될 때까지, 신나게 즐겨 보자고.”

(고통의 메아리 사용 시) “그래, 이게 좋아. 그 비명이 좋아. 다 해치웠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일어나버리는! 그때의 절규! 무력감까지!”

(다시 전투 불능 시) “호, 실력자가 있군. 다음에도 박아넣는 맛이 나겠어.”

“그래도 우리 협력자는 되돌려받아야겠지? 이 친구 덕분에 항레니게이드제에 장난도 칠 수 있었으니 말이야.”(순간퇴장 I+II로 이오리랑 같이 퇴장한다)

에너미 데이터

반데리예로

거짓 프래그런스로 변장한 토레아도르의 공작원이자 엘 마타도르의 분신. 그의 심대한 망집 덕분에

완전히 다른 개체로 분할되었으나, 그가 엘 마타도르의 일부인 건 사실이다.

◆데이터

브리드 : 크로스 브리드

신드롬 : 엑자일/모르페우스

능력치 기능

【육체】8 〈백병〉5 〈회피〉1

【감각】8 〈사격〉5 〈지각〉1

【정신】4 〈의지〉5

【사회】2 〈교섭〉2 〈정보: 빌런〉2 등

【HP】220 【행동치】20

장갑치 : 10

침식률 : 160% (다이스 +4개)

취득 이펙트(침식을 보정 완료)

▼엑자일

《유배자의 대낮》(RW) 4, 《올 레인지》7, 《히드라의 분노》7

▼모르페우스

《커스터마이즈》5, 《모래는 모래로》5, 《브루탈 웨폰》5, 《헌드레드 건즈》7, 《기간틱 모드》1

▼일반 이펙트

《컨센트레이트 : 모르페우스》3

▼에너지 이펙트

《궁극의태》(엑자일) 1, 《소생부활》1, 《순간퇴장》1, 《순간퇴장 II》1, 《생명증강》6, 《킹덤》(모르페우스) 1, 《가속하는 시간》4

※ 레벨은 전부 침식을 보정이 된 상태다.

취득 아이템

-

E로이스: 고통의 메아리, 악몽의 거울상, 변이하는 악몽, 가학의 연회, [시나리오 고유] 일방관철 (총 5개)

◆콤보 데이터

▼테르시오 데 반데리야스(Tercio de Banderillas)

《컨센트레이트: 모르페우스》+《커스터마이즈》+《올 레인지》+《브루탈 웨폰》+《모래는 모래로》+《유배자의 대낮》

타이밍: 메이저 액션

기능 : 사격 다이스 : 27(24)

크리티컬 치 : 7 난이도 : 대결

대상 : 5체 범위 : 30m

공격력 : 47+2D (26+2D)

해설: 무수히 쏟아지는 작살의 파도. 시간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그의 시간이다. HP 피해 발생 시 이펙트로 작성한 아이템 모두 파괴, 시나리오당 1회. 괄호 안은 《히드라의 분노》 미적용시 데이터.

▼반데리야 아구도(Banderilla agudo)

《컨센트레이트: 모르페우스》+《커스터마이즈》+《올 레인지》+《브루탈 웨폰》+《모래는 모래로》+《기간틱 모드》

타이밍: 메이저 액션

기능 : 사격 다이스 : 27(24)

크리티컬 치: 7 난이도 : 대결

대상 : 범위(선택) 범위 : 30m

공격력 : 47 (26)

해설 : 한 손에 든 예리한 작살이 뚫어낼 사냥감을 노린다. HP 피해 발생 시 이펙트로 작성한 아이템 모두 파괴, 사용 후 장비한 무기 모두 파괴. 괄호 안은 《히드라의 분노》 미적용시 데이터.

◆PC가 4인일 때

HP를 -30 한다. 이는 2부에서도 유효하다.

피카도르

토레아도르의 행동대장.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를 퍼트리고, 이를 맞아떨어지게 하는 엘 마타도르의 계획을 이행했다. 제1 시설을 초토화한 것도 그다.

◆데이터

브리드 : 크로스 브리드

신드롬 : 키마이라/브람 스토크

능력치 기능

【육체】9 <백병> 7 <회피> 6

【감각】4 <사격> 3

【정신】2 <의지> 2

【사회】1 <정보: 발런> 4

【HP】190 【행동치】10

장갑치 : -

침식률 : 130% (다이스 +4개)

취득 이펙트(침식률 보정 완료)

▼키마이라

《완전수화》4, 《켄타우로스의 다리》5, 《지성 있는 짐승》1, 《헌팅 스타일》3, 《그래플》3, 《날려버리기》4, 《짐승의 왕》1, 《마수의 증표》8, 《마수의 치유력》6

▼브람 스토크

《붉게 빛나는 검》6, 《파괴의 피》6, 《갈증의 주인》5, 《불사불멸》2, 《적색의 종자》5, 《붉은 강의 종복》2, 《목소리 없는 자들》4, 《어두운 밤의 저주》4, 《우자의 병장》5

▼일반 이펙트

《컨센트레이트: 브람 스토크》3

▼에너지 이펙트

생명증강》5, 《소생부활》1, 《순간퇴장》1

※ 레벨은 전부 침식률 보정이 된 상태다.

취득 아이템

▼기타

종자의 기량: RC*5

◆콤보 데이터

▼테르시오 데 바라스(Tercio de varas)

《완전수화》+《켄타우로스의 다리》+《지성 있는 짐승》+《헌팅 스타일》+《붉게 빛나는 검》+《파괴의 피》

타이밍: 마이너 액션

기능 : - 다이스 : -

크리티컬 치 : - 난이도 : 자동 성공

대상 : 자신 범위 : 지근

해설: 그의 무기는 검붉은 랜스 뿐만이 아니다. 이 썬 동안 【육체】를 사용한 모든 판정의 다이스 +5개, 전투이동 거리+25m, 인게이지 무시한 전투이동 가능. 또한 HP 8을 소비하여 공격력 32의 백병 무기 장비.

▼피카르(Picar)

《컨센트레이트: 브람 스토크》+《그래플》+《갈증의 주인》+《날려버리기》

타이밍 : 메이저 액션

기능 : <백병> 다이스 : 18(15)

크리티컬 치: 7 난이도 : 대결

대상 : 단일 범위 : 지근

공격력 : +32

해설 : 랜스를 든 충격기병의 관성으로 대상을 압도한다. 장갑치 무시. 명중 시 HP 20 회복. HP 대미지를 입혔을 경우, 그 라운드 동안 대상의 가드치 -15 및 인게이지로부터 8m 강제 이동. 팔호는 종자가 남아 있을 경우의 데이터.

▼모노사비오(Monosabio)

《마수의 증표》+《마수의 치유력》

타이밍: 오토 액션

기능 : - 다이스 : -

크리티컬 치 : - 난이도 : 자동

대상 : 자신 범위 : 지근

E로이스: 거둬하는 절망, 피의 신부, 피의 그을림(총 3개) ◆PC가 4인일 때 HP를 -30 한 뒤 클라이맥스에서 종자 1체를 삭제한다.	공격력 :- 해설 : 아아, 한 번쯤은 말에서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두 번은 할 수 없겠지만. 전투 불능 시에 사용한다. 전투 불능을 회복하고 HP를 60+6D10만큼 회복. 시나리오당 1회.
--	---

피카도르의 종자 피카도르가 빚어낸 붉은 종자. 겉으로는 그와 다를 바 없으나, 종자가 진짜 피카도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는 너무 늦었을 것이다.	
◆데이터 브리드 : 크로스 브리드 신드롬 : 키마이라/브람 스토커 능력치 기능 【육체】5 【감각】5 【정신】5 〈RC〉6 【사회】5 【HP】35 【행동치】15 장감치 : 0 침식률 : 130% (다이스 +4개) 취득 이펙트(침식률 보정 완료) ▼브람 스토커 《어두운 밤의 저주》4 ▼일반 이펙트 《컨센트레이트: 브람 스토커》3 취득 아이템 -	◆콤보 데이터 ▼레드 스파이크 《어두운 밤의 저주》+《컨센트레이트: 브람 스토커》 타이밍: 메이저 액션 기능 : 〈RC〉 다이스 : 9 크리티컬 치 : 7 난이도 : 대결 대상 : 범위(선택) 범위 : 지근 공격력 : +20 해설: 찢러들 줄 알았던 피카도르는 그대로 목표 앞에서 폭발해, 사냥감의 힘을 빼 놓는다. 그것이 피카도르의 직무이므로. 메인 프로세스 종료 후 이 캐릭터의 HP는 0이 된다. ■ 배틀 플랜 이동할 수 있다면 마이너 액션으로 PC가 제일 많은 인게이지로 이동한다. 그다음 메이저 액션으로 ▼레드 스파이크를 같은 인게이지에 있는 모든 PC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에너미 배틀 플랜

전투 배치는 다음과 같다. **PC**들이 한 인게이지를 이룬다. 이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피카도르의 종자 **2**체가 각각 따로따로 배치되어 있고(즉 종자는 **1**체당 한 인게이지를 이룬다), 종자들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피카도르가 있다. 따라서 피카도르는 **PC**들과 **15m** 떨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종자의 배틀 플랜은 변경 없이 속행하나, 피카도르는 **1**라운드 셋업 프로세스에 모든 **PC**를 대상으로 **E**로이스 《피의 그을림》을 사용한다. 마이너 액션에는 ▼테르시오 데 바라스 를 사용하여 **PC**가 가장 많은 인게이지로 이동한다. 메이저 액션으로는 ▼피카르를 사용하여 무작위 **PC**를 공격한다. 마이너 액션 때 공격할 **PC**를 지정하고, 이때 대상이 된 **PC**가 피카도르와 인게이지 하고 있지 않다면 마이너 액션의 전투이동으로 그 **PC**의 인게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카르로 인해 **PC**가 전투이동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인게이지에서 **8m** 이탈시킬 것. 방향은 임의로 하되, 그 이동으로 다른 인게이지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처음으로 전투 불능이 되었을 경우 ▼모노사비오 를 사용하여 전투불능을 회복하고, 다시 전투 불능이 되었을 경우 《불사불멸》로 전투 불능을 회복한 다음 가장 빠른 이니셔티브 프로세스에 **E**로이스 《거둬하는 절망》으로 반데리예로를 **PC**들(이 가장 많은 인게이지)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등장시킨다.

반데리예로는 이니셔티브 프로세스에 등장하자마자 《가속하는 시간》으로 메인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메이저 액션으로는 **E**로이스 《가학의 연회》²+《일방관철》³을 피카도르에게 사용한다. 두 번째 메인 프로세스에서는 마이너 액션으로 《헌드레드 건즈》를 사용한 다음 ▼테르시오 데 반데리야스를 사용하여 피카도르와 무작위 **PC** 4명을 공격한다. (즉 5인 플레이일 경우 **PC** 중 1명은 공격받지 않는다.) 이후 라운드에서는 매 셋업 프로세스에 《히드라의 분노》를 사용한다. 《가속하는 시간》은 매 라운드 마지막에 사용하며, 모든 메인 프로세스에서 마이너 액션으로《헌드레드 건즈》, 메이저 액션으로 ▼반데리야 아구도 를 **PC**가 제일 많은 인게이지⁴에 있는 모든 **PC**를 대상으로 삼아 공격한다. 전투 불능 시 처음에는 **E**로이스 《고통의 메아리》를 자신을 제외한 모든 캐릭터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시 전투 불능이 되거나 《고통의 메아리》로 전투불능을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 《소생부활》 하여 《순간퇴장》+《순간퇴장II》로 오사카 이오리와 함께 씬에서 퇴장한다.

▶엔딩 페이지

씬 17: 뒤틀기 (마스터 씬)

해설

엘 마타도르가 제1 시설에서의 패배를 언론을 통해 윤색하고, 뒤틀려 하는 장면이다. 악의 본거지를 묘사하는 것이 맞다.

묘사

² 해제 조건은 반데리예로의 전투 불능이다.

³ [캠페인 고유 **E**로이스] 일방관철: 타이밍: 오토 액션 / 난이도: 자동 성공 / 효과: 불순한 집념은 그 거리에 구매받을 수 없다. 어찌 마음이 살결이 닿지 않는다 하여 전해지지 않겠는가?다른 **E**로이스와 같이 사용한다. 그 **E**로이스의 사거리를 시야로 변경한다.

⁴ 단, 피카도르가 생존해 있을 경우 피카도르가 있는 인게이지의 모두를 공격한다. 목표는 피카도르의 《가학의 연회》를 발동시키는 것이다.

토레아도르의 은신처. 엘 마타도르가 칼을 손질하는 가운데, 만신창이가 된 반데리예로가 오사카 이오리와 함께 돌아온다. 엘 마타도르는 반데리예로부터 몇 가지를 확인한 뒤, 언론사에 보낼 각본을 쓰기 시작한다.

대사 모음: 엘 마타도르와 반데리예로

“...돌아왔군. 지고 온 건가? 너 또한 ‘나’인데도?”

“그 단어 입에 담지 말라고 했지.”

“뒤에 히어로들이 붙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지. 히어로 외에 다른 목격자는 있나?”

“이거만 남았지. 현장에서 없애버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이오리를 가리킨다)

“귀찮은 것만 남은 셈이군... 그렇다면, 영웅놀음 하는 녀석들을 먼저 치워놓는 게 편하겠지.”

“칼이라도 빼들 거냐?”

“아니. 녹화한 건 있나?”

“그럼.” (미디어 파일 하나를 엘 마타도르에게 보낸다)

“그럼 한 마디면 충분해. 가령,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마이크를 테스트한다)

결말

엘 마타도르가 마이크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기 직전에 씬을 종료한다.

씬 18: 시작의 끝 (전원)

해설

비록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가 완벽한 허위로 밝혀졌지만, PC들에겐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산더미다. 제1 시설은 초토화되었고, 배신한 프래그런스가 가짜라면 진짜 프래그런스는 어디에 있으며, 오사카 이오리는 또 어디로 끌려갔단 말인가? 이에 대해 논의하며 키리타니와 디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모든 방송 매체에서 똑같은 내용의 뉴스를 전달한다. 그 요지는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가 완전한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프래그런스와 수많은 연구원이 제1 시설에서 사망하였으며, 그 범인은 팀 서치라이트에 소속된 PC들이라는 것.⁵ 뉴스가 다 끝나면 여론지수는 이전의 수치와 무관하게 10이 된다. 즉,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여론지수 10으로 여론 페이지즈를 시작하게 된다.

묘사

다시 R대책실. 키리타니 유고는 여러분의 디브리핑을 듣고 있다. 약간은 의아스러운, 또는 침통한 표정으로. 진상이 밝혀졌다고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그들이 초석에 남긴 상처는 되돌리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흔을 어찌 덮을지 고민하던 중, 사실만을 섞어놓았지만 진실이라고는 전혀 없는 뉴스가 송출된다.

대사 모음: 키리타니 유고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는 토레아도르의 소행에, 목적은 항레니게이드제를 일소하는 것이라.”

“...그 근거 없는 리스트 하나로 너무 많은 이들의 피가 흘렀군요.”

“진짜 프래그런스의 행방은 아직도 알 수가 없고, 하나를 해결했더니 셋이 늘었습니다.”

⁵ 물론 PC들은 뉴스에서 사망했다는 프래그런스가 반데리예로임을 알 수 있다.

“이 안에는 개인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인 구출도 히어로와 R대책실의 임무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후 처리는...”(뉴스가 송출된다)

대사 모음: 뉴스

“속보입니다.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가 완전한 허위로 밝혀진 가운데, 프래그런스가 제1 시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정황상 프래그런스는 당시 시설을 공격한 빌런, ‘피카도르’를 상대로 분전하다 사망했다고 추정되었는데요.”

“그러나 프래그런스를 살해한 범인이 담겼다는 영상이 모든 방송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같이 보시죠.”(화면에는 PC들이 프래그런스로 변장한 반데리예로를 공격하는 장면‘만’이 송출되었다)

“시각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우리 언론사에서 범인을 안면 인식 전문가와 특정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레드 스파이크 리스트의 진상을 밝힌 ‘팀 서치라이트’의 히어로 전원이 이 사건에 가해자로서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를 두고, 사회에서는 각종 추측과 불신이 들끓고 있는 상황...”(그 뒤는 볼 가치가 없는 것 같다)

결말

뉴스에 대한 PC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시나리오를 종료한다.

▶경험점

시나리오 목적 달성-레드 스파이크 리스트의 진상을 밝혀냄: 7점

E로이스: 8개

FS차트: 5점

▶캠페인 기믹: 여론 지수

개요

도교의 여론은 이미 조각났고, PC들은 맹신과 불신이 동시에 판치는 여론 지형을 기반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약 여론이 PC들에게 우호적이라면 적은 노력으로도 찬사와 비호를 얻을 수 있지만, 여론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땀은 땀대로 흘려도 욕은 욕대로 받아먹을 것이다. 따라서 여론을 PC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활동이나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PC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비록 당신들의 행동은 여론으로 제약받겠지만, 여론을 바꾸는 동인은 여러분의 경이로운 손끝, 견고한 논지, 그리고 대중과 기관을 움직이는 세 치 혀임은 자명하다. 그 결과는 즉각적일 것이며, 그리고 광범위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적은 갱신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론과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

여론지수는 최저 0, 최고 50이다. 여론지수에 따른 상황은 이하와 같으며, 초기 여론지수는 21이다.

여론 지수 및 상태

여론 지수	여론 상태	설명	효과
41~50	굳건한 신임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지지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행적은 신뢰를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세계를 사수하려 행동하는 여러분은 이 도시의 빛이고 희망이다. 기관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줄 것이다.	무력화 횟수: 0회 증폭 난이도: 7 기타: 전투와 총동을 제외한 모든 판정의 크리티컬치 -1. 씬당 최대 1회씩 조달 가능한 아이템 요청 가능.
31~40	약간의 신뢰	점차 여론이 사태 이전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는, 히어로로는 아마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고 있으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	무력화 횟수: 1회 증폭 난이도: 8
21~30	반신반의	사람들은 판단을 유보한다. 여러분은 지지하지 않는 것에 분통을 터트릴 수도 있고, 적대하지 않는 것에 안도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직한 증거, 정교한 논리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의 땀과 노고가 곧 설득력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무력화 횟수: 1회 증폭 난이도: 9
11~20	사회적 역경	상황이 악화일로로 흘러간다. 불신으로 빚어진 잇단 소요사태로 평소 치안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지원은 매우 힘들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하다!	무력화 횟수: 2회 증폭 난이도: 10
0~10	총체적 불신	아무도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 히어로, 항레니게이드제도 마찬가지로 불신의 대상이다. 그 팔라딘의 이미지마저도 입을 잘못 놀린다면 형편없이 실추될 것이다. 이때라면, 우리의 적은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다.	무력화 횟수: 3회 증폭 난이도: 11 기타: 다음 여론 페이지 종료까지 여론지수가 사회적 역경 이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PC 측이 패배한다. ⁶

⁶ 그러나 실제로 이것 때문에 PC들이 패배하지는 않게 하자. 여론 지형 '총체적 불신'은 단지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게임 내적 요소다. GM은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세션 참여자가 이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메타적으로 이를 공개할 것.

여론 페이지

1부: 9/10/14 씬

2부: 3/4/8 씬. 단, 8씬에서는 여론 페이지를 진행하는 것이 씬의 중심 내용이 된다.

이상의 씬을 종료한 뒤 **PC**들은 등장침식 없이 여론 페이지를 진행한다. 여론 페이지에서 각 **PC**는 직접 행동, 정당화, 증폭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행동할 수 있다. 엘 마타도르는 **PC**의 정당화를 제외한 행동 중 하나를 무효로 처리하는 무력화를 사용할 수 있다.

직접 행동: 직접 행동은 영웅의 능력으로 이 사건을 더 경이롭게, 더 설득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빚어내는 활동을 칭한다. 단순히 도둑을 잡았다는 소식보다는 어떤 영웅이 무슨 능력으로 도둑을 저지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는 더 인상적으로 들릴 것이다. 히어로 홍보 효과는 덤이다. **PC**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해 판정한다. 판정 성공 시 아무런 추가 효과가 없다면, (달성치의 **10**의 자릿수)+**1**만큼 여론지수가 증가한다.

정당화: 정당화는 엘 마타도르의 왜곡을 격파할 정당한 논리를 구성하여 무력화를 저지한다. 정당화를 하는 **PC**는 [정신] 또는 [사회]의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엘 마타도르는 같은 기능으로 이에 리액션한다.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엘 마타도르는 정당화가 성공한 횟수만큼 무력화를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엘 마타도르가 무력화를 3번 사용할 수 있는데 정당화가 2번 성공했다면 엘 마타도르는 무력화를 1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화에 성공할 때마다 최종적으로 여론지수가 **2**씩 상승한다.

증폭: 증폭은 여러분이 이론 공적을 언론이나 유명인, 그 외 여러 매체 등의 수단을 통하여 널리 알리는 행동이다.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여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이젠 무가치하므로. [사회]의 기능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판정한다. 일정 난이도를 넘기면 성공하고, 달성치는 직접 행동과는 달리 누적된다.

비고: 이때 [사회]를 이용한 기능으로 판정할 경우, 커백션:OO이나 하이드 아웃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필요하다면 고지할 것.

참고: “엘 마타도르”의 능력치

【육체】6 <백병> 7 <회피> 6

【감각】1

【정신】8 <RC> 7 <의지> 4 <지식:IT> 3

【사회】3 <교섭> 4 <조달> 4 <정보: 빌런> 6

침식률: 160%

여론지수 증감 계산

모두가 행동을 마쳤으면, 엘 마타도르는 무력화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무력화를 사용하여 무작위 PC의 행동 결과를 무효로 만든다. 엘 마타도르가 무력화를 다 사용하였다면 이하의 도식으로 여론지수가 상승한다. 성공한 증폭 판정이 없다면 여론지수는 직접 행동에 성공한 PC 달성치의 10의 자릿수)+1의 총합만큼만 상승하는 것으로 한다.

여론지수 상승분={직접 행동에 성공한 PC 달성치의 10의 자릿수)+1의 총합}*{(증폭으로 누적된 달성치의 10의 자릿수)+1}+(정당화 성공 횟수)*2-(엘 마타도르의 최종 감소치)⁷

여론 판정으로 올라간 여론지수의 합에서 엘 마타도르의 최종 감소치⁸를 뺀다. 그 결과가 다음 씬의 여론지수가 된다. 이 기믹은 시나리오 종료 후에도 다음 시나리오까지 이어진다.

▶임시 후기

안녕하십니까. 앤디입니다. 정사 시나리오 한 편 썼다가 RW 스테이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레니게이드 워를 바라왔고... 분명 서플리먼트도 정독하며 읽었습니다. 캠페인을 상정한 시나리오도 뛰어보지 못했고, 남은 건 280점에 맞는 에너지 빌딩하는 방법 정도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RW 스테이지를 무대로 잡고 시나리오를 집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RW는 다른 스테이지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오버드의 존재가 대중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죠. 즉, RW에서는 오버드가 다른 스테이지와는 달리 비-오버드의 사회에 깊게 관여할 수 있고, 동시에 관여받을 수 있습니다. 히어로가 노멀의 시선을 신경써야 한다는 소리죠. 그 정점은 히어로에 대한 여론이구요. RW는 히어로로서 압도적인 강함과 유쾌함을 체험할 수 있지만, 노멀이 여론으로 히어로에 대한 신용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플리먼트에 따르면 이미 불안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불안한 동거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발에 땀나도록 일하는 R대책실과 히어로의 노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워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게 항레니게이드제죠. 그걸 대표하는 아이콘이 프래그런스라면, 프래그런스가 히어로를 배신했다는 뉴스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믿음을 뒤흔들면 어떻게 될까, 에서 이 시나리오는

⁷ 예: PC 5명 중 3명이 직접 행동으로 각각 10, 21, 9, 2명이 증폭으로 13, 7의 달성치를 냈다면 (2+3+1)*3=18 만큼 여론지수가 상승한다.

⁸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에 8, 두 번째에 10, 세 번째에 12로 한다. 그러나 이는 GM의 재량에 따라 변경하기를 권장한다. 시나리오의 목적은 PC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며 PC의 달성치 상황에 맞게 적당히 조정할 것.

가령 1부에서는 여론 페이지 1회마다 여론 상태가 대략 한 단계씩만 좋아지도록 엘 마타도르가 여론 지수를 감소시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2부의 경우 초반에 PC들이 여론 지수를 올리는 것이 대단히 힘들 수 있으므로, 1부보다는 완만하게 여론 지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강조하지만 PC들을 패배시키는 건 기믹의 목적이 아니다.

출발했습니다. 마침 현실 세계도 안티백서 열풍이다 뭐다 해서 시끌시끌했으니, 아무래도 현실 쪽을 모티브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보다 극적인 판타지는 많지 않으니깐요.

이 시나리오에서 **PC**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동시에, 에너지와 여론전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게 캠페인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처음부터 에너미를 여론전의 물화로 상정하고 구성했어요. 메인 흑막 이름이 “엘 마타도르”인 이유도 흑색선전을 뜻하는 마타도어에서 따왔으니깐요. 검사검사 에너지 집단을 투우사처럼 구성한 건 덤입니다. (이를 위해 투우 레퍼런스를 제법 찾아봤습니다만... 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만 끔찍하다고 느꼈으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컨셉은 **2부**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PC 1의 시나리오 로이스인 오사카 이오리는 테스트 플레이를 거치고, 시나리오를 개편한 결과, 이런 광풍에 휘말리는 소시민 역할로 정착했습니다. 아마 항레니게이드제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풍파를 많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1부**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2부**에서 작은 역할도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PC 1**이 시나리오 로이스를 잃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반드시 살리는 게 국법 아니겠습니까? 오사카 이오리는 결국 돌아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단편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첫 테스트 플레이에서 오프타 7시간+ORPG 5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때 **20시간** 안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같은 안일한 생각을 품었는데, **2번째** 테스트 플레이에서 **ORPG로 28시간**이 나오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2부**로 분할했습니다. 분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캠페인 플레이 타임은 대략 **40시간** 언저리로 예상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시나리오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초기 시나리오가 그렇게 길어진 이유는 그냥 시나리오 하나에 **2편**어치 내용과 기믹을 집어넣고 **1편**이라고 우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시나리오 분할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었다면 플레이 타임 대비 경험점이 반토막이 났을 테니까(joke)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테스트 플레이에 참여해주신 **9분**께 감사를 바치고자 합니다.

있는 건 미완성된 한글 파일밖에 없는 인생 첫 오프타에 기꺼이 참여해주시어 이를 아름답게 승화시켜주시며 제게 용기를 북돋아주신 새벽님, 리틀언데드님, 도미니카 봉순님, 이오님. 그리고 절대 바래지 않을 수르트, 오달-D, 시즈카, R박사님. 여러분 덕분에 이 캠페인은 정서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마스터링임에도 개선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텍스트 플레이를 보여주신(그리고 양심 터진 **GM**의 롤플레이를 받아주신) 슈팜님, 이린님, 고요님, 솔잎님, 카눌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하뉴다 노노, 츠키시로 오리히메, 카도오카 료, 카토 유우야, 제피리온.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시나리오에는 수많은 죄책감과 늘어지는 전개를 그대로 안고 공개될 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깊이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3.03.25.

